

# 광주 시에 서울대병원 데이터 접목 진료 정확도 높인다

## 인공지능 융합사업단-의생명연구원 데이터 활용 협력 협약 의료 데이터 관리환경 조성...진단·처방 도와 인력난 개선 기대도

광주시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축적중인 고도의 의료 진단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술과 접목해 체계적인 AI 의료 데이터 관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 초기 진료 시간을 단축하고, 의료진의 정확한 의료진단과 처방 등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

계의 활용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광주시 산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대학교병원 지식영역에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과 인공지능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과 김용진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이형

철 서울대병원 데이터사이언스연구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AI를 의료 현장에 적용해 의료 진단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AI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사업 협력과 기술 교류를 통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 세부 내용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등 제반시설 지원 ▲신규 사업 기획 및 과제 발굴 연계 협력, 과제 공동 수행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협력 ▲기술 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 기술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AI사업단의 AI데이터센터 컴퓨팅 자원을 제공 받을 예정인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축적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AI 의료 진단 데이터 활용법을 구축하는 등 국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병원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의료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병원, 헬스케어 산업과 AI 융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I사업단은 지난 4월 조선대학교병원과도

업무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 기반 의료산업 활성화를 돕고 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실증 등 인프라 및 제반시설 지원, 신규 사업 기획 및 과제 발굴 연계 협력·과제 공동 수행, 헬스케어 수집데이터 및 가상환경 테스트 데이터 공유,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특히 현재 병원 신축을 계획 중인 조선대병원은 인공지능 디지털 의료 신기술 등을 새로운 병원에 적극 도입해 최첨단 스마트 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교육청-동구, 교육협의체 구성 협약 광주 동구는 12일 광주시교육청과 온마을이음학교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교육협의체 구성·운영, 지역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양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협약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시, 탄소중립 인센티브 12억 지급

온실가스 9만9110t 감축...에너지 절약 10만8000명 대상

광주시는 "최근 1년간 에너지 사용이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10만8000여명에게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12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된 인센티브는 온실가스 감축량 9만9110t에 해당하는 것으로, 30년산 소나무 1502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하고 포인트를 받는 에너지 부문과 주행거리 감축으로 보상받는 자동차 부문으로 나뉜다.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 인센티브 5억9800만원을 5만367가구에 지난 6월 지급했으며 올해 상반기 감축분 5억2000만원을 5만

6021가구에 지급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올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분석해 1643명에게 1억1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에너지 부문 가입은 누리집(http://www.cpoint.or.kr)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부문 신규 가입은 매년 2~4월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순인구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많은 시민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해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17일 2차 '공항 회동' ...강기정 시장 "반발 짝은 나가야"

### 김영록 지사와 만남...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거듭 촉구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할 두 번째 회동을 앞두고 "지난번보다 적어도 반발 짝은 나가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이번 만남은 지난번의 원칙적 이야기 정도로는 안 된다"며 "적어도 지난번보다, 지금 상태에서 진전된 이야기를 하고 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무엇을 말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13일로 예정된 김영록 전남지사의 무안군민과 대화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기도 했다.

무안은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역 내 반대 여론이 거세 논의가 가로막혔다.

강 시장은 "무안군민과 대화에서 군민의 생각이든, 군수의 생각이든, 도지사의 생각이든 솔직하게 대화가 이뤄져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보고 김 지사와 회동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오는 17일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 만나 공항 이전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난 뒤 7개월 만이다.

강 시장은 또 이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철

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거듭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 법을 통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만 총선이 임하는 국민, 유권자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의 대표(국회의원)들을 선출하지 않을까 싶다"며 "총선 전 이번 국회에 반드시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간청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중국 광저우 출장에서 돌아온 9일 저녁 통화에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총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두 시장의 공통된 인식도 강조했다. 강 시장은 오는 19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이번 주 중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원회 관계자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 전남도, 한파·폭설 농업재해 상황실 운영

내년 3월5일까지...취약농업인 보호·응급대처 요령 홍보

전남도가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등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에게 한파, 폭설 등 재해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올 겨울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할 경우 기온 하락 폭이 크고 저기압 영향 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폭설 등 재해 발생 시 농작물과 분야별 농업 시설물 관리, 독거노인 등 취약 농업인 야외활동 자제, 응급대처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 자체적으로는 농축산식품국장을 반장으로 재해총괄팀, 조동대응팀, 시설엔터팀, 축산팀을 구성해 2024년 3월 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폭설과 한파 등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요령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요령 ▲사·군별 재해담당자 지정 및 피해상황 관리·보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등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 계획을 시·군에 시달렸다.

비닐하우스 주변, 인삼, 월동작물은 눈 녹은 물에 따른 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해 두는 것이 좋다. 과수농가는 나무 주간부 흰색 페인트 도포 및 보온자재를 피복하고, 시설 하우스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을 설치해야 한다. 인삼재배시설 차광막과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폭설에 따른 비닐하우스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보강지주를 2-6m 간격으로 설치하고, 하우스 끈을 팽팽하게 당겨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눈이 오는 날은 수시로 하우스는 열어 내리기, 가온시설이 있는 하우스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시켜 쌓인 눈이 녹아내리도록 조치해야 한다.

김영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해복구를 위해 경찰청·소방청·농업인행복콜센터와 긴급출동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